이슈브리핑
Issue Briefing
20110214 vol.28

전북의 상징문화공간, 전라감영복원사업과 연계필요하다

1부

연구진 김형오 부연구위원 eventkim2000@jd.re.kr
연구진 이성재 연구위원 cityarchi@jd.re.kr
연구진 양지인 연구원 sunshine@jd.re.kr

Chapter 1 | 전북에서 상징적 문화공간의 의미
Chapter 2 | 국내외 상징적 문화공간의 사례와 시사점
Chapter 3 | 상징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전북도민 의식조사
Chapter 4 | 상징문화공간의 대상지는 어디가 좋은가?
Chapter 5 | 전북의 상징문화공간, 전라감영복원사업과 연계필요

jthink 전북발전연구원

이슈브리핑 Issue Briefing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은 홈페이지 (www.jd.re.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 이슈브리핑 2011년 2월 14일 vol.28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 발행인 : 원도연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57(중앙동 4가 1) TEL : 063-280-7100 FAX : 063-286-9206

전북의 상징문화공간, 전라감영복원사업과 연계필요하다. 1부

Contents

Chapter 1 전북에서 상징적 문화공간의 의미 3
Chapter 2 국내외 상징적 문화공간의 사례와 시사점 4
Chapter 3 상징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전북도민 의식조사 9
Chapter 4 상징문화공간의 대상지는 어디가 좋은가? 11
Chapter 5 전북의 상징문화공간, 전라감영복원사업과 연계필요 14

2011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Issue Briefing

Chapter 1

전북에서 상징적 문화공간의 의미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상징적 문화공간은 어디인가. 전북이 한국문화의 뿌리이자 문화예술의 고장을 자처하고, 그 중에서는 전주가 가장 한국적인 도시임을 자타가 공인하는 마당에 전북 혹은 전주의 문화적 상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세계적인 문화도시들은 대부분 그 도시의 문화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문화공간이나 건축물을 갖고 있고 그 건축물과 연계한 거리와 광장을 통해 도시와 문화를 자랑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는 에펠탑과 퐁피두 센터라는 도시문화의 상징이 있고, 호주의 시드니에는 오페라하우스가 있다. 스페인의 빌바오는 구겐하임 분관을 통해 단번에 세계적인 문화도시의 반열에 올랐다.

런던의 테이트모던 미술관은 런던이 산업중심에서 문화중심으로 옮겨가는 상징이 되었으며, 문화도시 혹은 창조도시를 꿈꾸는 많은 이들의 순례코스가 되었다. 그런가하면 시민들과 긴밀하게 호흡하면서 그 도시의 대표적인 문화명소가 된 공간들도 있다. 일본의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이나 중국 상하이의 모간산루같은 경우가 그렇다.

그렇다면 전북과 전주는 어떤가. 전북의 중심도시인 전주에는 어떤 문화적 상징이 있는가. 전주는 최근 10여년 동안 한국의 전통문화를 선도한 도시였다. 한옥마을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지면서 연간 관광객이 1백만명을 넘은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전주를 다녀간 많은 관광객들에게 전주의 이미지를 깊이 각인시키고 다시 찾아오고 싶은 명소로 만드는 문화적 이미지와 상징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어떤 공간이나 건축물, 혹은 거리나 광장이 문화적 상징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하다. 상징적 문화공간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고,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그 이후의 과정도 대단히 복합적이다. 상징적 문화공간은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역문화와 역사를 통해 만들어지기도 한다. 거기에 그 공간이 형성되는 시기의 정치사회적 영향을 받기도 한다.

예컨대 파리의 에펠탑은 1889년 파리의 만국박람회를 기념하면서 세워졌지만, 이후 유럽의 근대를 상징하는 한편 파리의 문명과 문화를 대표하는 기념물이 되었다. 물론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장소에 세워지는 건축물이나 조형물은 그 시대의 역사와 사회적 관계를 표상하기도 한다. 공간학자인 데이비드 하비(D. Harvey)는 도시의 건축물이란 자본이 공간을 지배하는 방식을 표현하기도 하며 사회적 관계를 상징한다

고 지적한 바 있다.[1)]

대개의 경우 상징적 문화공간은 전시, 공연, 교육, 휴식, 창작 등 복합적 기능을 가진 문화공간으로써, 여기에 지역주민의 소통 공간이자 놀이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형성된 문화공간은 지역주민, 관광객, 문화예술인 간의 교류와 소통을 이끌어내며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상징화된 장소이미지를 형성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물리적 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그 도시의 랜드마크가 된다.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다양하게 제기되었던 전라북도의 상징적 문화공간에 대해서 먼저 국내외의 사례를 통해 개념을 정리하고, 다음으로 전북도민들의 상징적 문화공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상징적 문화공간이 만들어진다면 어느 지역에 어떤 형태로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한다.

Chapter 2

국내외 상징적 문화공간의 사례와 시사점

1) 기념비적인 건축물로 조성된 랜드마크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은 세계적인 건축물 하나가 도시 전체의 이미지를 바꾸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배가시킨 사례다. 1980년대 후반 빌바오시는 문화와 관광산업이 구(舊)산업의 쇠퇴로 몰락하는 도시경제를 재건할 중요한 수단이라 판단, 문화를 통한 도시 마케팅 전략을 구상했다.

빌바오시는 본래 제철산업과 광산, 조선산업 등이 융성한 인구 40만명의 산업도시였으나, 1980년대 철강산업의 쇠퇴로 급격한 위기에 접어들었다. 이 상황에서 빌바오시는 문화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1억달러를 들여 조선산업이 빠져나간 그 자리에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했다. 1991년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던 1,600억원을 들여 티타늄과 유리, 석회암을 주재료로 하고, 꽃잎을 설계 컨셉으로 한 '메탈플라워'가 이렇게 탄생했다. 물론 당시 빌바오 시민의 90%가 이 사업을 반대했지만 빌바오시의 용기와 결단은 오늘날 구

1) 데이브 하비는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에 세워진 성심대성당의 경우 리 제2왕정 시기에 왕당파와 부르조아, 카톨릭, 파리코뮌의 민중 사이에 벌어진 계급투쟁의 산물이었으며 그것은 도시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의 상징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성심대성당은 직접적으로는 "파리가 재로 변한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국가적인 잘못을 공인하며 그것의 파멸 위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고자 한다"는 순교자들의 피를 기념했지만 그것은 사실 '혁명에 대한 교회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D. Harvey, 1989, 『도시의 정치경제학』에서 인용)

겐하임 미술관을 세계적인 상징적 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켰고, 그 결과는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졌다.

구겐하임 미술관을 짓기 위해 공사비용 1억 달러, 로열티 20년간 2천만 달러 등이 투입되었지만 이 건축물을 보기 위해 매년 찾아오는 관광객을 통해 도시 전체의 매출과 조세수입이 증가하여 3년 안에 투자금을 회수했다. 2005년까지 바스크 정부가 얻은 수익은 2억 유로를 상회한다는 평가이며, 서비스 부문 4천5백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연간 관광객은 90만명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빌바오시는 도시 전체를 상징하는 이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 공모를 받았고 그 결과 세계적인 건축가 프랭크 게리(Frank Gehry)가 당선되어 1992년 건축가로 임명되었다. 1996년 솔로몬 구겐하임 재단은 1997년부터 2000년에 이르는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의 장기적인 전략을 발표하였고, 1997년 10월 3일 역사적인 개장을 하면서 빌바오 구겐하임의 명성은 오히려 뉴욕의 본관을 능가하기 시작했다.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은 '빌바오 효과(Bilbao Effect)'로 불리며 건물 하나가 도시 전체를 바꾼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호주의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역시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건축물로 도시의 랜드마크를 형성한 사례다. 20세기 10대 건축물에 선정되기도 한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는 캥거루의 이미지만 있던 호주에 문화적 향기를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1954년 건축 설계안이 공모됐을 때 1등에는 덴마크의 무명 건축가였던 요른 우존(Joern Uton)이 풍부한 상상력을 이유로 선정되었지만, 그의 설계안을 두고 현실성에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오히려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을 짓는 게 쉽다는 얘기까지 돌았다.

착공에 들어간 후에도 구조적인 안정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으나, 영국 구조설계팀에 의해 특수엔지니어링 기법이 사용되었다. 공사기간은 무려 20년이 걸렸으며, 당초 700만 호주달러를 예상했던 총 공사비용은 무려 14배인 1억200만 달러(약 1140억원)가 소요되었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실내에는 5개의 크고 작은 공연장과 부설돼 있는 1,000여 개의 방은 호주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이 건축물의 건물가치는 13억 호주달러(약 1조 4500억원)로 추산되며, 1년에 400만 명의 관광객이 이 극장을 찾고 있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역시 시드니를 대표하는 상징적 문화공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프랑스 퐁피두센터

프랑스 파리의 퐁피두센터는 기념비적인 건축물이자 동시에 시민문화공간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갖고 건설되어 도시를 대표하는 상징적 문화공간으로 발전한 사례다. 1969년 당시 프랑스 대통령 죠르주 퐁피두가 '문화생산 공장'이라는 개념 하에 '예술진흥과 사회교육을 위한 문화센터' 건립을 선언하면서 시작한 복합문화공간 건설 프로젝트다.

당시 이 문화센터는 조각과 회화를 소장하고 전시하는 기능 뿐 아니라 음악, 영화, 연극 등을 위한 연구와 전문 도서관을 갖춘 동시대의 문화복합 공간이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공모 실시했다. 1971년 국제현상설계 공모전을 통하여 총 861개 안이 접수되었고 최종적으로 렌조 피아노(Renzo Piano)와 리처드 로저스(Richard Rogers)의 설계가 당선되어 1972년 착공하

여 1977년 개장했다.
퐁피두센터는 6층 건물에 거대한 파이프 프레임에 의해 지지되도록 설계되었다. 현대적이며 획기적인 외관은 물론 공간배치에도 차별화를 두어 기존의 보부르 광장을 센터 건물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유리를 소재로 매개하여 '소통'의 개념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공공영역이라는 인식을 갖게 했다.
또한 서민적이고 민주적인 공간에 예술공간을 만들어 지역주민들로부터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만남의 장소이자 문화의 중심장소로 인식되었고 동시에 현대미술의 전문성도 겸비하고 있다.
퐁피두센터는 연간 800만 명의 방문객이 찾고 있고, 도서관 및 미술관 이용객은 하루 평균 3만명 정도로 20년간 1억 6천만 명의 방문객을 기록했고 이중에 외국인의 비율이 25%를 상회하여 성공적인 상징문화공간으로 평가되고 있다.

▲구겐하임미술관

▲오페라하우스

▲퐁피두센터

2) 도시재생과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랜드마크

영국 데이트모던 미술관

영국 런던의 데이트모던 미술관은 산업시대의 공장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도시재생과 예술진흥을 이룬 대표적인 사례다. 산업혁명기의 문화를 상징하던 화력발전소를 현대문화의 상징인 미술관으로 변모시킴으로서, 본래 기능을 상실한 채 중심으로 퇴락해 있던 일대가 미술관으로 변화한 후 런던의 대표적인 문화지역으로 전환시켰다.

테이트모던 미술관은 1994년 국제 건축현상설계를 공모하여 세계적인 건축가 자크 헤르조그(Jacquess Herzog)와 피에르 뮤롱(Pierre de Meuron)이 설계하였고 공사비용을 최소화하여 비용절감과 함께 전통과 변화를 적절히 조화시켜 2000년 5월 12일 개관했다.
7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쳤고 한화 2,680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되었다. 사업예산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발매된 국립 복권과 밀레니엄 프로젝트 공공예산, 기부금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2000년 개관 이후 한 해 평균 4백만 명 이상의 방문객수를 기록하고 있다. 2005년 4월까지 2천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2천 4백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일본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일본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역시 버려진 방직창고를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전환시킨 경우다. 도시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산업이 아닌 전통문화와 수공업으로 보고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문화적 활동이 기반이 될 것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프로젝트다.

1910년 건축된 방직공장의 창고를 시정부가 매입하고 리모델링하여 시민들에게 개방, 시민들의 예술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했다. 시정부에서 이 공간의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365일 24시간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996년 개관하였고 규모는 97,000㎡, 시설은 공방과 직인대학, 퍼포먼스관, 잔디광장, 사무동, 레스토랑, 전통가옥인 사토야마 하우스로 구성되었다. 시민예술촌은 지금 아마추어 예술가들의 문화예술의 창조, 성과발표의 장, 이용자간의 교류와 교육연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가나자와시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21세기형 창조도시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상하이 모간산루(莫干山路)

중국 상하이 모간산루 역시 공장을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하여 시민들의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면서 이를 상징적 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킨 사례다. 이 지역에는 본래 1930년대 지어진 제분공장과 방직공장들이 자리잡고 있었지만 이후 산업의 쇠퇴로 인해 공장건물이 방치되어 있었다.

이를 상하이시에서 구입하여 저렴한 임대료만을 받고 넓은 공간을 예술가들에게 창작공간으로 제공하였다. 1998년 대만 출신의 건축설계사 덩쿤옌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의 예술인들이 공간을 채워나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상하이를 대표하는 문화예술공간이 되었다.

이 공간은 중국 국내의 예술가들 뿐 만 아니라, 대만, 홍콩,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한국 등 세계 16개 국가에서 온 문화 · 예술 분야 종사자들이 스튜디오와 갤러리를 설치하여 활동하면서 세계적인 명물이 되었다. 현재 이 공간에는 80여 개의 예술단체, 140여 개의 화랑, 18개의 디자인 센터가 자리잡고 있다.

▲데이트모던미술관

▲시민예술촌

▲모간산루

3) 외국 사례의 시사점

첫째는 도시 전체에 혁신적이고 개방적인 사고가 있어야 한다. 전북과 같이 새롭게 상징적 문화공간을 조성할 경우에는 도시 전체를 문화적으로 바라보는 혁신과 창의의 마인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고 독창적이고 혁신적 사고를 가진 건축가들의 참여가 절실하다.
건축물 하나로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성장한 빌바오나 시드니의 경우와 같이 건축디자인, 건물의 용도설정 등에서 지역사회의 반대를 극복하고, 이를 장기간에 걸친 협의와 설득, 이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사업비 역시 당초의 계획예산을 넘는 한이 있더라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혁신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지금과 같은 성과를 얻었다.

둘째는 독창적인 건축물의 필요성이다. 전북과 같이 새롭게 상징적 문화공간을 조성할 경우에는 무엇보다 전세계에 어필할 수 있는 전통적이고 독창적인 건축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 단조로움이나 불명확한 이미지를 탈피하고 전북만의 차별성과 독창성을 보여주는 이미지와 경관에 대한 이해가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관점이 결과적으로 건축물의 내용, 건축양식 등 창의적인 요소를 끌어내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러한 철학적 과정과 바탕이 있어야 이 공간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시켜 줄 것이다.

셋째는 기존의 도시를 재생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쇠퇴하는 구도심을 쇠퇴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재생의 관점에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런던의 도시 한 가운데 흉물로 서 있던 화력발전소를 테이트 모던 미술관으로 탈바꿈시킨 도심재생의 아이디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도시구조는 시간과 쓰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도시의 성장과정에서 도시가 지향하였던 역사와 장소는 어떠한 형태로던 기억으로 남기고자 노력했던 시도도 도시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넷째는 상징적 문화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다. 도시에 건설되는 문화공간 시설을 시민들이 직접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움'과 '참여의 공간'으로 제공하는 발상의 전환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공간들이 그 도시의 상징적 문화공간으로 성장한데는 지역과 예술공간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오랜 협력의 산물이다.

Chapter 3

상징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전북도민 의식조사

1) 상징문화공간에 대한 도민 의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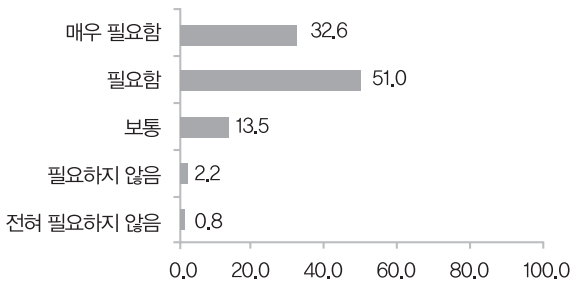
Key Questions	Research Design	Contents
상징문화공간의 필요성	조사 대상	•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도민
상징문화공간의 입지 및 조성방향	표본 크기	• 총 1,000명(유효표본 924 부)
상징문화공간 유형 및 도입시설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조사원과 일대일 면접조사
상징문화공간 조성 시 고려사항	조사 기간	• 2010. 11. 18~23(6일간)
방문율 제고 방안 및 기대효과	조사 지역	• 전라북도 14개 시 • 군
	표본 구성	• 성별과 연령별로 임의할당하여 조사

❶ 상징문화공간의 필요성

전북도민의 상당수는 전북에 상징적 문화공간이 있기는 하지만, 지역의 대표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새로운 상징적 문화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88.5%는 현재 전북에 상징적 문화공간이 있다고 응답했고, 그곳이 어디냐는 물음에는 한옥마을(34.8%), 한국소리문화의 전당(27.8%), 월드컵경기장(10.3%)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의 대부분(83.6%)은 전라북도에 새로운 상징문화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전체 32.6%의 응답자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필요하지 않다는 부정적 의견은 3.0%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 전북도민들은 전북을 대표하는 상징적 문화공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표 1〉 상징문화공간의 필요성

구 분	빈도(명)	비율(%)
매우 필요함	301	32.6
필요함	471	51.0
보통	125	13.5
필요하지 않음	20	2.2
전혀 필요하지 않음	7	0.8
전체	924	100.0



상징적 문화공간이 필요한 이유는 지역의 대표이미지(32.2%), 대표관광지 조성(28.9%), 도심활성화(19.5%), 문화향유기회 확대(19.1%)의 순서로 나타났다.

❷ 상징문화공간 입지

상징적 문화공간을 조성한다면 어디가 좋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체의 55.1%가 전주시 일원 특히 한옥마을을 꼽았고, 새만금 지역이 33.9%, 기타 지역이 11.0%로 나타났다. 전북도민들에게 최근 몇 년간 한옥마을이 보여준 관광지로서의 잠재력과 명소화의 가능성이 높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표 2〉 상징적 문화공간 조성시 적합한 위치

구분	빈도(명)	비율(%)
전주시 일원	494	55.1
새만금 지역	304	33.9
도내 기타 지역	99	11.0
전체	897	100.0

상징적 문화공간의 조성방향에 대해서는 새로운 문화공간의 조성을 39.1%가 지지했고, 기존 문화시설의 기능보완을 통한 조성이 36.6%, 문화시설이 아닌 유무형자원의 활용이 23.6%로 나타났다.

❸ 상징문화공간의 적합한 유형

상징적 문화공간을 조성할 경우 가장 적합한 유형으로 응답자들은 건축적 의미와 문화, 관광의 의미를 포괄하는 복합문화공간형(52.7%)을 가장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관광형 시설이 30.5%, 도시건축물이 16.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북도민들이 단일한 용도와 유형의 단순한 상징건물보다는 시민들 스스로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복합적 공간을 선호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표 3〉 상징적 문화공간의 가장 적합한 유형

구분	빈도(명)	비율(%)
복합문화공간형	473	52.7
관광형	274	30.5
도시건축형	150	16.7
전체	897	100.0

상징적 문화공간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이러한 성향은 도민들이 바라는 주요 도입시설에서도 다시 확인되고 있다.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상징적 문화공간의 내용으로 전시실과 박물관, 음악당 등 문화시설을 선호했고, 상징적 조형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다음으로 나타났다. 또 카페나 음식점 등과 같은 상업시설의 필요성도 중요한 콘텐츠로 꼽았다. 과거와 같이 수동적인 객체로서 문화공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

〈표 4〉 상징문화공간내 주요시설

장애요인	1순위		2순위		3순위	
	명	%	명	%	명	%
문화시설(전시관, 박물관 등)	289	32.2	262	29.2	142	15.8
상징조형물(건축물)	268	29.9	172	19.2	127	14.2
역사문화유산	140	15.6	150	16.7	136	15.2
상업시설(카페, 음식점 등)	94	10.5	136	15.2	165	18.4
이벤트 공간	45	5.0	87	9.7	95	10.6
휴식공간	61	6.8	90	10.0	232	25.9
전체	897	100.0	897	100.0	897	100.0

하고 즐기는 주체적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❹ 상징문화공간의 방문율 제고 및 기대효과

마지막으로 상징적 문화공간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변시설과 조화 및 연계해야 한다는 응답이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역시 상징적 문화공간이 고립적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도시 전체의 기능적 연계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실용적인 사고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 상징적 문화공간의 방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변 시설 및 관광자원과 조화를 이루며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38.0%)도 높게 나타났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40.8%)함으로써 도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았다.

응답자들은 상징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관광객 증가 등 관광 활성화로 인해 지역의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것(60.4%)으로 기대했으며, 도민들의 문화향유기회가 증대(20.3%)되고 지역 정체성 확립의 계기가 될 것(11.8%)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Chapter 4

상징문화공간의 대상지는 어디가 좋은가?

* 대상지 선정은 본 이슈브리핑 연구진들의 연구결과임을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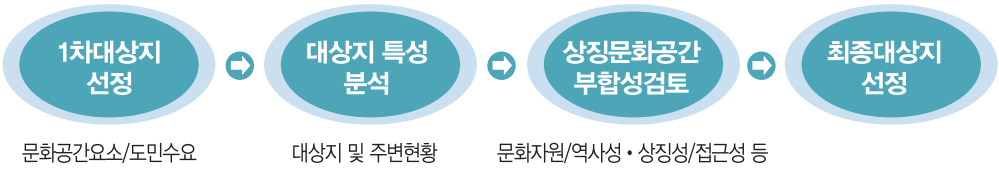
1) 상징문화공간의 대상지 선정

상징적 문화공간 대상지는 앞서의 도민의식조사 결과와 전주시가 갖는 역사문화적 상징성을 고려하여 우선 전주시를 1차 대상지로 선택했다. 최종 입지선택을 위해 우선 전주시 일원에서 문화공간 요소 및 도민수요를 고려, 상징적 문화공간과의 부합성 검토를 통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를 위해 먼저 문화공간의 기본요소와 도민의 수요를 고려하여 1차 대상지를 선정하고, 각 대상지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한 후, 상징문화공간과의 부합성을 검토하여 최종 대상지 선정하고자 했다.

- 1차대상지 : 문화공간의 기본요소인 사람, 거리, 문화활동과 도민수요에서 나타난 전주시 일원 중 신규 문화공간 조성 또는 기존 문화시설의 기능보완을 고려
- 대상지 특성 분석 : 1차 대상지로 선정된 공간 중 장소가 지니고 있는 성격과 기본특성 분석
- 상징문화공간 부합성 검토 : 전북의 대표성과 향후 상징문화공간으로의 발전 가능성 검토
- 최종 대상지 선정 : 1차 대상지의 특성과 상징문화공간과의 부합성을 기준으로 선정

〈그림 1〉 상징문화공간 대상지 선정 과정



❶ 상징문화공간의 1차 대상지 선정 : 문화공간 기본요소 및 도민수요 고려

상징문화공간의 1차 대상지는 사람이 모이고, 이를 통해 문화활동이 창출될 수 있는 문화공간의 기본요소를 고려하고, 도민수요(전주시 일원)를 반영하여 전주공설운동장,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월드컵경기장, 전라감영터(구 전북도청)로 선정했다.

❷ 1차 대상지의 공간 특성 : 사이트 및 주변 현황

1차 대상지에 대해서는 각각 개별 공간이 지니고 있는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본특성과 주변 지역의 문화자원 분포 및 상호 연계 가능성 등을 먼저 점검했다. 1차 대상지에 해당하는 각각의 공간은 도민의 문화향유 수요를 충족시키고, 문화행사 및 일부 문화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로서 각기 전북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의미와 위상을 지니고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전북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상징성과 주변지역의 연계 가능한 문화자원, 집객력, 문화공간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수요 등은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표 5〉는 이러한 특성을 연구자들이 분석한 결과이다.

〈표 5〉 1차 대상 공간의 특성

장애요인	특 성
전주공설운동장	• 전주시의 중심 간선도로인 팔달로와 백제로가 교차하는 지점
	• 문화공간보다는 도심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음
	• 도심형 컨벤션센터로 조성하기 위한 지자체의 정책수요 강함
	• 주변에 문화공간이 다수 분포하나 보행자보다는 통과교통이 많아 연계성 미흡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 도민의 문화향유 수요에 대응하는 거점으로 문화공간으로서의 위상 확보
	• 사람의 집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시적 행사공간으로 활용
	• 도심 외곽에 위치함에 따라 연계 가능한 문화자원의 분포 미흡
월드컵경기장	• 전주시의 관문으로 상징성 및 대표성을 지니고 있음
	• 외부인들의 접근성은 양호하나 내부인의 접근성은 미흡
	• 문화공간으로서의 활용 및 연계 가능한 문화자원의 분포가 미흡하여 잠재력 미약
전라감영터	• 전북의 역사문화적 상징인 전라감영터 부지로 행정 중심지로서의 대표성 내재
	• 전통과, 근대, 현대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주변 문화자원과 연계 가능
	• 전주시 전통문화중심도시 사업의 핵심으로 발전 가능성 양호
	• 전라감영의 전체 또는 일부복원이라는 사회적 논쟁이 진행되고 있음

❸ 상징문화공간 부합성과 최종 대상지 선정

앞서 정리된 1차 대상 공간의 특성을 놓고 기존연구를 검토하고 연구진 및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거쳐 상징적 문화공간으로서 요구되는 특성(대표성, 장소성, 발전잠재력)과 비교, 상징적 문화공간과의 부합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밟았다. 〈표 6〉은 연구진들이 최종 정리한 부합성 지표와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표 6〉 상징문화공간 부합성 지표

주요지표		세부내용
대표성	상징성	전라북도를 대표하고 의미 부여가 가능한 대상
	역사성	전북의 문화 및 역사를 함축하고 도민이 공유할 수 있는 대상
장소성	집객력	사람이 모이고, 사람의 활동을 통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
	접근성	일반인 또는 문화예술인의 문화공간에 대한 접근 용이 정도
발전잠재력	문화자원 연계성	대상지와 주변 지역의 문화자원의 연계 가능 정도
	정책수요	도 및 지자체가 문화공간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 의지 정도

〈표 7〉 상징문화공간 부합성 검토

주요지표		전주공설운동장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월드컵경기장	전라감영터
대표성	상징성	△	◎	○	◎
	역사성	△	△	△	◎
장소성	집객력	○	○	△	○
	접근성	◎	△	△	◎
발전잠재력	문화자원 연계성	△	○	△	◎
	정책수요	◎	△	△	◎

주 : ◎ 매우적합, ○ 적합, △ 보통

이러한 부합성 지표를 통해 4개 지역을 평가한 결과 전라감영터가 최적의 부지로 선정되었다. 이 지역은 무엇보다 상징성과 역사성이 있으며, 사람의 집객 및 용이성, 그리고 주변 지역과 연계를 통해 상징문화공간으로 발전 잠재력이 매우 양호한 지역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반해 전주공설운동장은 집객력과 접근성, 정책수요는 높았으나 상징성과 역사성, 문화자원과의 연계에서 취약성을 보였으며,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은 상징성과 집객력은 높았지만 역시 지역적으로 너무 고립되어 있고 접근성이나 연계효과가 높지 않았다. 월드컵 경기장 역시 상징성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표에서 강한 인상을 남기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Chapter 5

전북의 상징문화공간, 전라감영복원사업과 연계필요

* 대상지 선정은 본 이슈브리핑 연구진들의 연구결과임을 밝힘

앞서 전북의 상징적 문화공간이 조성될 경우 최적의 입지로 선정된 전라감영터는 오랫동안 전라감영 복원사업이 논의되고 있는 역사문화의 현장이다. 전라감영 복원사업에 대한 논의는 지난 10여 년 간 계속 되어왔다. 최근 2~3년간은 내용적으로 진전된 구상들이 속속 제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이 미루어짐에 따라 관련 논의들만 계속적으로 반복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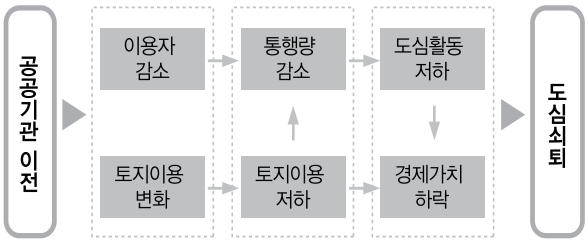
이로 인하여 전통문화중심도시로서 도시정체성의 확보는 물론이고 도시의 긍정적인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특히 전라감영터 주변은 전북도청 이전 이후 도심쇠퇴가 빠르게 심화되고 있어 도심재생의 핵심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즉 공공기관 이전은 도심이용자 감소 및 토지이용의 변화를 야기시키고, 통행량감소→도심활동저하→경제가치하락→토지이용저하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도심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라감영 복원사업의 추진경위

- 1996년 : 전라감영복원에 대한 논의 시작
- 2000년 : 전라감영지를 국가사적지 지정신청을 했으나 문화재청으로 보류됐고, 그해 전라북도 문화재로 지정됨
- 2004년 : 전라감영복원 및 구도심 활성화방안(전북발전연구원)
- 2005년 : 전라감영지 시굴, 발굴조사 용역(전주시)
- 2006년 : 전라감영복원 기본계획 용역(전주시)
- 2008년 : 전라감영 복원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방안(전북발전연구원)
- 2009년 :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전라감영滑 대문 복원추진위원 구성
- 2011년 : 올해 1월초에 전라감영 선화당 위치가 국가기록원 소장 자료에 의해 밝혀짐

  ⇨ 이와 같이,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구도심권 상권 회복을 위해 전라감영복원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복원방법 및 사업규모, 시기, 절차, 재원확보 등 다양한 문제점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부진한 상태임

〈그림 2〉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도심쇠퇴 과정



또한, 전북도청 이전에도 불구하고 전통문화공간과 현대문화공간은 방문객이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표 8〉에서 보듯이 근대문화공간은 방문객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표 8〉 상징문화공간 내 도청이전에 따른 통행량 변화

(단위 : 명, %)

		도청이전 前	도청이전 後	증감율	비 고
현대문화공간	A	2,738	2,840	3.7	
전라감영터	B	452	284	-37.2	
	C	285	119	-58.2	
전통문화공간	D	1,430	1,648	15.2	

그리고 한옥마을은 전주의 전통성과 역사성을 대표하는 전주 최고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나, 공간적인 범위가 협소하고, 활동성(activity)이 떨어진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고, 무엇보다 한옥마을 거리와 짝을 이루는 문화의 거리 혹은 관광 매력요소(attraction)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전주의 현대문화를 대표하는 공간은 객사 주변의 걷고싶은 거리와 영화의 거리인데, 특히 걷고싶은 거리는 향후 문화의 거리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공간이지만 청소년들에게만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 관광객 유인에 실패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전라감영 복원사업이 늦어지면서 한옥마을과의 연계 발전도 지체되고 있다. 최근 관광산업의 절대적 호기를 맞고 있는 전주 한옥마을이 도시관광의 측면에서 더욱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풍남문과 전라감영지, 객사, 영화의 거리가 서로 긴밀하게 연계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라감영 복원이 지지부진 하면서 이러한 전략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전라감영터 주변은 크게 조선~근대~현대로 이어지는 시대적 성격이 투영된 공간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전통문화 공간, 근대문화 공간, 현대문화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라감영지는 구 전북도청을 매개로 한 근대문화의 유산이 풍부한 특성을 갖고 있다.

- 전통문화공간 : 국가지정문화재인 풍남문, 경기전,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구역
- 근대문화공간 : 전라감영터 내에 입지한 구 전북도청
- 현대문화공간 : 객사 뒤편에 위치한 젊은이의 거리, 걷고싶은 거리 등 특화거리

〈그림 3〉 전라감영 주변의 문화공간 현황

〈그림 3〉은 현재 전주 구도심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공간의 현황이다. 한옥마을의 성공과 걷고 싶은 거리의 성공은 도심재생사업이 역사와 문화라는 주제와 연결될 때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전라감영 복원사업과 상징적 문화공간 조성을 연계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시너지효과는 매우 크다. 무엇보다 전북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을 조성함으로서 한옥마을이나 걷고 싶은 거리와는 또 다른 관광의 매력을 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주권의 관광객 집객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역의 상징적 문화공간은 전라감영터를 중심으로 산재되어 있는 문화공간들을 대표하고, 발전 잠재력이 양호한 요소들을 하나로 응집시키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또 전라감영 주변에 있는 한옥마을, 경기전, 객사, 테마거리 등 전통문화공간과 객사 뒤편의 현대 문화공간들을 연계할 수 있는 주제와 공간배치도 필요한 요소다.

물론 전라감영 주변에 세워질 문화공간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과 같은 대형 예술공간이라기 보다는 중소규모의 시민참여형 복합문화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혹은 삼성문화회관 등과 기능상의 중복을 피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기능적으로는 가나자와 시민예술촌과 같은 창작과 공연, 전시가 가능한 중소규모의 공연장과 전시실, 시민예술가들을 위한 창작실 등이 배치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공간은 건축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호소할 수 있는 매력을 가져야 한다. 그 매력적 요소는 공간적으로는 한옥마을, 그리고 객사 등과 어우러지는 건축물이어야 하고, 역사적으로는 전주의 도시와 연계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 경원동에 위치한 예술회관(현 소리문화의 전당 분관)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계승할 필요도 있다. 건축상으로는 빌바오의 구겐하임이나 퐁피두 센터와 같은 매력과 위용을 가져야 하고, 주변 환경과의 연계라는 점에서는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를, 내용적으로는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북의 상징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전라감영복원사업과 연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라감영지가 전통문화공간과 현대문화공간을 연계하는 중심지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과 전라감영지의 문화적 활용이 요구된다.
과거와 현재 측면에서의 문화적 활용방안은 주변 문화공간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거점 기능과 시민참여형 복합문화공간 기능을 고려하고, 현재와 미래 측면에서의 문화적 활용방안은 전북의 차별성과 독창성을 표현할 수 있는 스타키텍트(starchitect)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부에서 계속)**